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전 공개

'차이밍량 행자 연작 특별전'... 차이밍량 감독 신작 '무소주' 포함 특별전 진행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차이밍량 - 행자 연작 蔡明亮 - 慢走长征 系列作品 Tsai Ming-Liang - Walker Series' 특별전을 선보이며, 이를 기념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와 차이밍량(Tsai Ming-Liang) 감독은 2001년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디지털심인삼색에서 감독의 첫 디지털 단편 영화인 <신과의 대화>(2001)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화를 지지해왔기에,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차이밍량 감독을 영화제의 역사와 다시 연결하게 돼 영광"이라며, 오랜 인연을 맺은 차이밍량 감독을 이번 특별전으로 다시 만나는 것에 기쁨을 표했다.

더불어 이번 특별전과 관련해 "영화가 스토리텔링에 한정되지 않는 이미지의 예술임을 입증하는 행자 연작은 미학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서 영화가 현실을 반영함을 드러낸다"며 "아무 사건도 없이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걸기만 하는 행자의 느린 발걸음은 수

수한 반복이 만들어 내는 물성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힐 바란다"고 이번 특별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차이밍량 - 행자 연작 특별전에서 세계 최초로 차이밍량 감독의 행자 연작 10편 전편을 극장에서 관람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중국 고전 '서유기'의 삼장법사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차이밍량 감독의 행자 연작 10편은 2012년 <무색 No Form>을 시작으로 타이베이, 홍콩, 말레이시아 쿠칭, 파리, 워싱턴 D.C. 등 각기 다른 도시를 배경으로 붉은 승복을 입은 행자로 분한 이강생 배우가 맨발로 느리게 걷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연작 10편 중 최신작 <곳 Where>(2022)과 <무소주 Abiding Nowhere>(2024)은 코리안 프리미어로 상영될 예정이다.

10편의 연작 중 40분 이내 단편들은 세 편씩 묶어 상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fest.kr)를 참고하면 된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차이밍량 - 행자 연작 蔡明亮 - 慢走长征 系列作品 포스터

/장은성 기자

'꿈의 무용단 전주' 어린이 참여단원 모집

전주문화재단, 초등학교 3~6학년 25명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4 꿈의 무용단 전주' 어린이 참여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전주시 초등학교 3~6학년 25명으로, 이들은 6월부터 매주 일요일 총 23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쇼케이스와 발표회를 갖는다.

참가 신청은 팔복예술공장(www.palbokart.kr) 혹은 전주문화재단(jcf.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5월 제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약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용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재단은 2023년 공모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3억 이상의 국고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5년 연속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1~3년차까지는 매년 1억씩 총 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4~5년차에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연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전주시와 협력체계



를 갖추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우선 모집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장은성 기자

전승공예품은행 전승자 작품 구입 민간위탁 기관 선정

한국전통문화재단, 7억9900만원 확보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2024년 전승공예품은행 전승자 작품 구입 민간위탁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 7억9,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형유산 전승자의 공예작품 구입을 통해 공예 종목 전승자들의 전승 활동을 장려하고 전통공예작품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등 공예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되

는 사업이다.

이에 전담은 전승공예품은행 사업과 관련된 전통공예분야 전승자들의 작품을 구입, 제작,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구입 운영사업은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산하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왔다.

전담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무형유산 전승공예품에 대한 △계약 및 매입 △작품운송 △안전이관 및 진열 △전시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전통문화의 보전,

계승, 육성, 그리고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전승공예품은행의 위탁 업무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그리고 공예문화의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위탁·대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훌륭한 우리의 무형유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예원당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4일과 5일 오후 2시, 지난해 서울, 전주, 부여, 부산에서 매진을 기록한 바 있는 어린이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을 선보인다.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에 동화적 스토리를 엮어 만든 어린이 무용극으로, 마법 같은 무대 연출과 감동적인 음악, 창의적인 안무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

사한다.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 각각의 동물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연기하며, 박지선 작가의 대본과 김세희 감독의 연출, 이이로 작곡가의 아름다운 음악이 공연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공연 예매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만 진행되며 전석무료이다. 또한 공연 전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강강술 미로' 체험 프로그램이 공연장 로비에서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이수자 4명 창작 공간 지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기술 분야 이수자 4인을 선정, 작업공간과 숙소, 창작활동비, 재료 등을 지원하는 '2024년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 (이하 창의공방)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창의공방은 국가무형유산 공예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역량을 창의적으로 고민해 확장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입주 프로그램으로, 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올해 창의공방 참가자는 지난 2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매듭장 이수자 박선희, 화각장 이수자 이종문, 소목장 이수자 윤순일,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3월 25일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의 교류 활동 등을 거쳐 각각 오늘날의 쓰임과 아름다움에 맞게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창작 작품 3종을 제작할 계획이다.

창의공방 참가자들이 제작한 작품은 10월 말 개최 예정인 결과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12월에는 작품을 소개하는 결과도록을 발간하고,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섬과 치유의 야(夜)밤 고창투어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과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에서 운영하는 '섬과 치유의 야(夜)밤 고창 투어(이하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투어는 고창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와 야간 경관 명소를 연계해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100여 명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4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